자기소개서-윤지혜

(성장과정)

“창조하는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면 친구들은 항상 집 앞 놀이터로 모였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놀이터를 더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때로는 온 동네가 이야기 교실이 되었다가, 놀이공원이 되었다가, 장기자랑 무대가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방송반에서 교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미술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조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때 집안 사정으로 인해 미술을 중단하면서 목마름을 책으로 채웠습니다. 도서관 구석에 자리한 두꺼운 동, 서양의 고전을 정복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시대를 초월한 감성과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덕분에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어서 교내, 외의 논술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성격 장 단점)

“끝장을 봅니다”

저의 별명으로 성격을 소개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지칭할 때 ‘아이디어 뱅크’라고 부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결국에는 길을 찾아낸다고 붙여준 별명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바로 이 ‘끈기’와 ‘긍정적인 마음’이 저의 장점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을 한꺼번에 떠맡는 바람에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 맡겨진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도우면서 친분을 맺게 되었으며 덕분에 저의 꿈을 구체화 할 수 있었고, 많은 멘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 및 활동)

“호기심을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문화체험단에 뽑히게 되면서 ‘유럽의 거리축제’를 테마로 체코, 오스트리아, 등의 6개국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던 저는 1년 후에 프랑스 아비뇽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고 ‘유럽의 문화정책을 보고 느끼자’는 마음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프랑스 구석구석과 유럽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있던 아비뇽은 세계 3대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이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7월을 제외하면 온 동네가 조용하다 못해 한산할 정도로 작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비뇽 유수로 알려진 낡은 교황청이 전부인 이 시골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6000여 편 이상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벽과 골목은 오히려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매개자’라는 자신감이 되었고, 무너져가는 교황청 내부를 연극의 무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를 소통하게 하는 ‘활용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중세시대의 유적을 복원하고 축제를 기획하여 시골의 활성화를 돕는 해외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식사는 조를 편성하여 스스로 조달해야 했는데, 식사담당인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바로 ‘조미료’ 였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바꾸는 가루를 신기해 했고, 저는 친구들에게 조미료를 ‘magic powder’라고 소개했습니다. 요리재료 조차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콘텐츠’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적기업창업소모임’에서 1년간 활동하면서 함께 나누는 경제학을 배우게 되었고, 바로 ‘콘텐츠’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무’의 소득을 ‘유’로 전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불 번역이나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회화에 대한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기 및 포부)

“아이디어 계좌를 개설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되어야 합니다. 1년 전, ‘근대화의 유산을 간직한 인천의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주제로 교내연구논문대회에 참여하였지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를 제시하여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제시할 수 있었던 공대의 논문에 비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획한 것이 실행되지 못하고 사장 되는 것을 보면서 아이디어는 실행될 때만이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외국에서 친구들이 한국을 동경하여 왔을 때, ‘특별하고 매력적인 요소’들의 부족을 공감하고, ‘한류 팬들을 어떻게 다양한 우리의 문화콘텐츠로 유입시킬 것 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성공적인 사례들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내용들을 보면서 이 곳에서 저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싶다는 소망과 제 역량을 키워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력서에 제출한 토익 점수는 높지 않지만 인터넷에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를 익히기 위해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우리의 문화역량을 높이고 활발한 콘텐츠 거래를 이룩하는 ‘문화콘텐츠계의 별’로 쓰임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움에 힘쓸 것입니다. 바로 이 문화콘텐츠 진흥원에서 저의 길을 열어가고 싶습니다.